인문연구 제93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0. Vol. 93, No. 1, pp.1~22
http://dx.doi.org/10.21211/JHUM.93.1

윤동주 시의 폭력과 질병 연구*

오채운**

〈차 례〉

1. 서론
2. 정서적 폭력과 정체된 자아
3. 심리적 질병에 대한 인식 양상
4. 폭력과 질병의 자기 치유
5. 결론

【국문초록】

윤동주의 시를 중심으로 하여 폭력과 질병의 문제를 극복의 방법과 함께 살펴보았다. 윤동주의 시에는 슬픔의 정서가 강하게 나타는데 이 슬픔의 정서는 외부로부터 폭력적으로 강요되는 것이다. 화자는 이렇게 폭력적으로 강요되는 슬픔의 정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매번 현실의 한계에 부딪혀 폭력적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 그래서 폭력적 상황에 대한 극복 대신 자신에 대한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111283)

**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강사

수치감과 죄책감, 고립감 등으로 얼룩져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윤동주는 성장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정체된 자아를 질병으로 인식한다. 이 질병은 신체적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질병에 대한 인식은 늙음과 젊음으로 양분되어 가부가 결정된다. 젊은 환자는 이 질병을 인식하고 밖으로 표현하며 치료하고자 한다. 반면에 늙은 의사는 질병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정하기까지 한다. 권력을 가진 기성세대의 억압에 의해 사회에는 젊은이의 질병이 늘어나는 것이다. 윤동주는 억압되어 있던 분노의 표출을 통해 사회적 질병의 치유와 정체된 자아의 성장을 모색한다.

그런데 이 기존 권력이 강요하는 폭력적 상황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다. 윤동주는 폭력과 질병의 문제를 통해 시대에 대한 자신의 내면적 고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동주의 시에서는 폭력과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 또한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세계의 화해로부터 찾을 수 있다.

주제어: 윤동주, 현대시, 폭력, 질병, 성장, 수치심, 죄책감, 고립감

1. 서론

폭력과 질병은 우리의 신체에 깃드는 지속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그런 만큼 이것들의 원인을 밝히고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사회제도적인 문제해결의 노력이나 의학계의 연구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넓게는 사회 전반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폭력과 질병에 대한 문학적 연구 또한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노력의 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한다.

문학에서 폭력과 질병의 문제는 좀 더 다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1] 시나 소설은 병리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폭력과 질병이라는 은유를 통해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2] 이러한 폭력과 질병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윤동주는 식민지 치하의 한국 사회를 하나의 병원이라는 공간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3] 본 연구에서 윤동주 시의 폭력과 질병에 관

1) 질병에 대해 수전 손택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질병은 두 가지 가설을 통해 확대되었다. 첫 번째 가설은 모든 사회적 일탈 행위가 질병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범죄 행위가 질병으로 간주될 수 있었으며, 범죄자는 비난받거나 처벌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사가 그를 이해하듯이 이해되고, 치료받고, 교정되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두 번째 가설은 모든 질병이 심리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질병은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사건으로 해석되었으며,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의식적으로 원했기 때문에 병에 걸리게 된 것이며, 의지를 사용해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으며, 질병으로 죽지 않기를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믿도록 유도됐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가설은 상호보완적이다. 첫 번째 가설이 죄의식을 덜어준다면, 두 번째 가설은 죄의식을 원상태로 돌려놓는다. 질병을 심리학적으로 다루는 이론은 환자를 비난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수단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스스로 질병을 가져왔다는 통고를 받게 되는 환자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병을 앓을 만한 짓을 했을 것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전 손택, 이재원 옮김, 『은유로서의 질병』, 이후, 2002, pp. 86-87 참조.

2) 수전 손택은 질병을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려드는 태도는 질병의 물리적 영역이 이해되지 못한 단적인 예이며, 질병이 '정신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한 물리적 질병은 흥밋거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견해에 가라타니 고진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손택의 말처럼 병이 메타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거꾸로 병을 순수하게 병으로서 대상화하는 근대 의학의 지식 제도에 사실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의문시하지 않는 한, 근대 의학이 발전하면 사람들은 병에서, 따라서 병의 은유적 사용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생각은 마치 병을 만들어내는 것은 악이며, 치료는 그 악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식의 신학의 세속적인 형태일 다름이다. 과학적 의학은 병을 따라다니는 이런 저런 의미들을 소거시켰지만 그 자신도 더 질이 나쁜 의미에 지배당한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옮김,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p. 144 참조.

해 참조할 선행 연구로는 우선 류양선의 연구를 들 수 있다.[4] 류양선은 윤동주 시 「병원」과 산문 「화원에 꽃이 핀다」를 집중 분석하면서 시대적 질환을 치유하기 위한 기원으로서 「병원」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은실은 병원을 아토포스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윤동주 시의 미학적 타자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5] 김응교는 아픔의 공유를 통한 윤동주의 타자인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6] 심원섭은 「병원」을 인간적인 욕구의 노출과 억압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7] 정원술은 실존주의적 변증 개념으로서 「병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8] 권경아는 윤동주 시의 병적 징후로서의 세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9] 임현순은 식민근대의 소외 극복과 참된 주체에 대해 논의한다.[10]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윤동주 시에 나타나는 폭력과 질병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윤동주 시의 폭력과 질병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첫째, 윤동주의 시에서 폭력적인 상황

---

3) 윤동주는 시 「병원」에서 의사는 늙어 있고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는 표현을 통해서 사회 자체가 병들어 있으며 치유의 방법을 찾을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병욱의 회고에 의하면 윤동주는 자신의 시집을 『병원』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려고 했다고 한다.

4) 류양선, 「윤동주의 〈병원〉 분석」, 한국현대문학회, 『한국현대문학연구』19, 2006, pp. 375-411.

5) 이은실, 「윤동주 시 〈병원〉에 나타난 타자성 연구」, 한국시학회, 『한국시학연구』49호, 2017, pp. 119-145.

6) 김응교, 「윤동주와 걷는 새로운 길(16)」,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2014, pp. 178-186.

7) 심원섭, 「윤동주의 미발표 작품과 퇴고 과정에 대한 일 고찰」, 국제어문학회, 『국제어문』25, 2016, pp. 319-349.

8) 정원술, 「윤동주와 키에르케고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14, pp. 185-214.

9) 권경아, 「〈병원〉에 나타난 병적 징후로서의 세계」, 『시와시학』, 시와시학사, 2005, pp. 144-149.

10) 임현순, 「윤동주 시의 디아스포라와 공간: 시의 창작방식을 통해 나타난 저항의지」, 우리어문학회, 『우리어문연구』29호, 2007, pp. 481-509.

은 어떻게 드러나며 그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질병에 대한 인식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화자가 취하는 태도에 대해 분석해 보겠다. 셋째, 윤동주가 시를 통해 폭력과 질병을 인식하는 과정과 극복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와 같은 과제의 수행을 통해 윤동주가 폭력과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모색하는 이상세계는 무엇인지 밝혀내고자 한다.

2. 정서적 폭력과 정체된 자아

시가 현실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완강히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현실 반영은 시인이 자신이 처한 현실 세계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윤동주의 시각에서 바라본 현실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할 때 일제 강점기라는 강압적 현실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폭력과 정체성에 대한 억압의 문제를 빼놓고 논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윤동주의 시에서 폭력적인 상황이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11]

>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우에 하늘이 펼쳐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 보려면 눈섭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쓰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 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11) 본 연구에서 윤동주의 시는 정음사에서 1955년에 발행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텍스트로 하였고 상용되는 한자 표기는 한글로 변환하여 인용하였다. 맞춤법은 원문을 살렸고 띄어쓰기는 원문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의 띄어쓰기에 맞추어 인용하였다.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골—아름다운 순이(順伊)의 얼골이 어린다.
소년은 황홀히 눈을 감어 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골—아름다운 순이의 얼골은 어린다

「소년」 전문

이 시에서 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시간적 배경은 가을이다. 그런데 이 시간적 배경인 가을은 "슬픈 가을", "뚝뚝 떨어진다"와 같이 슬픔과 쇠락의 정서로 시적 화자인 소년을 둘러싸고 있다. '가을'은 인간의 인생 주기와 견주어 볼 때 소년의 과정과는 맞지 않는 배경이다. 또한 "봄을 마련해 놓고"와 같이 이미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미 겨울로 접어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소년기에서 청년기로의 성장을 위해 내면을 채워가는 과정이 아닌 이미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이 '가을' 안에 있는 소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을' 앞에 붙어 있는 '슬픈'이라는 정서적인 조건이 소년의 내면을 지배하는 사회적 배경으로 깊게 자리하게 된다. 사실 이 슬픔의 정서는 소년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임과 동시에 사회에서 소년에게 요구하는 억압적 정서이기도 하다.

소년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슬픈' 정서적 혹은 사회적 배경 안에 놓인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된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매개체는 바로 '눈섭과 손바닥에 묻어나는 파란 물감'이다. 소년은 이 '파란 물감'으로 인해 자신을 둘러싼 "슬픈 가을" 대신 자신의 내면을 자각하게 된다.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씻어"보는 행위,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는 행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소년이 발견하는 자아는 자신의 "손금에 맑은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로 표현된다. 이 "맑은 강물이 흐르고"라는 표현은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 나온다. 이러한 반복적 표현을 통해 정체되어 있는 자아를 극복하고자 하는

소년의 의지가 아주 강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손금 안에 흐르는 강물은 일종의 환시인데 이러한 환시는 현실의 고착상태에서 벗어나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소년의 간절함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에서 소년이 손금에 흐르는 강물의 환시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어디인지 살펴보자. 소년이 손바닥을 보거나 눈을 감거나 하늘을 보는 등 시선을 이리저리 옮겨도 계속해서 보이는 것은 "아름다운 순이의 얼골"이다. 소년이 궁극적으로 이 사회에서 찾고자 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순이의 얼골"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사랑처럼 슬픈"이라는 조건이 붙게 된다. 현재 소년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인 공간과 시간, 사랑 등에는 모두 '슬픈'이라는 정서적 조건이 붙어 있다. 소년은 벗어날 수 없는 '슬픈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년은 능동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슬픔'이라는 정서로 삶을 지배당하게 된다.

에릭슨에 의하면 "소년은 학령기의 단계로서 심리적 발달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근면성이 발달하게 되고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는 열등감이 지배하게 된다."[12] 그런데 이 시에서 소년이 놓인 사회적 상황 즉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소년의 힘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면성을 발달시키기는 어렵고 열등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열등감은 청년기가 되면 「참회록」, 「자화상」 등에서는 죄책감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동주의 시에서 화자는 계속해서 슬픔과 절망을 강요하며 욕된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현실과 부딪쳐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년이 보는 '흐르는 강물'에 대한 환시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자 하는 극복의 의지이며 자신을 병들지 않게 하려는 자기 암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열등감에 정

12) 에릭 에릭슨, 송제훈 옮김, 『유년기와 사회』, 연암서가, 2014, pp. 316-319 참조.

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 흘러가려는 소년의 의지는 「참회록」과 「자화상」에서는 다른 감정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내 얼굴이 남어 있는 것은/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이다지도 욕된가//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주리자/----만이십사년 1개월을/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 왔는가//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그때 그 젊은 나이에/웨 그런 부끄런 고백을 했든가//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어 보자.//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슬픈 사람의 뒷모양이/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
> -「참회록」 전문

이 시에서 '파란 녹'은 「소년」에서 "흐르는 맑은 강물"이던 것이 흐르지 못해 낀 고인 물의 이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녹'은 정체된 것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화자가 구리거울에서 파란 녹과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는 순간은 성장하지 못하고 소년 시절에 머물러 침묵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과 화자가 동일시되는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구리거울은 화자가 "왕조의 유물"로 인식할 정도로 깊고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는 벗어나기 어려운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화자가 인식하는 '왕조'는 깨뜨려야 하지만 깨뜨리지 못하고 물려받은 견고한 유물이다. 그리고 그 유물은 자신을 더더욱 정체시키고 욕되게 한다. 이는 마치 김수영의 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에서 화자가 왕궁의 부정적인 면을 대놓고 욕하지 못해서 느끼는 수치감과 같은 것이다.[13]

---

13) 김수영의 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에는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오십 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옹졸하게 욕을 하고"와 같은 내용이 있다.

이때 화자는 자신을 병들고 녹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했기 때문에 '참회'는 한 가지 문제로 집중된다. 그것은 바로 정체되어 있지 않고 '흐르려고' 노력하는 자신 즉 정서적 폭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다. 그래서 참회록을 쓰고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어 보"는 노력을 계속한다. 이러한 행위는 「소년」에서 자신의 손바닥에서 흐르는 맑은 물을 찾아내는 행위와 동일 선상에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24년 1개월 동안의 전 생애를 살펴보았을 때 화자에게 인식되는 것은 "이다지도 욕된가"와 같은 수치감과 "웨 그런 부끄런 고백을 했든가"와 같은 자기의혹뿐이다. 화자가 이 시에서 자신의 생애를 돌아봄으로써 느끼는 수치심과 자기의혹은 에릭슨에 의하면 생후 1~2세에 획득해야 할 자율감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발생하게 된다.[14]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도 "어느 운석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오는데 이 모습은 '슬픈 가을'에 둘러싸여 있던 「소년」에서의 자아라 할 수 있다. 소년기를 지나 성인기에 들어서도 화자에게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체되어 수치감과 자기의혹이 계속되고 세상과의 친밀감을 획득

14) 에릭슨에 의하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자율성을 점진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거부될 경우, 또는 신뢰감을 초기에 상실해버림으로써 자율성이 악화될 경우 분별과 조작을 시도해 보려는 욕구로부터 스스로 등을 돌리게 된다. 수치심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감정인데 이는 우리의 문명에서 그것이 너무나 일찍 그리고 쉽게 죄책감으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수치심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개인을 의식하는 상태, 즉 자의식을 전제로 한다. 과도한 수치심은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기는커녕 수치심을 주는 대상을 제거하고자 하는 내밀한 충동으로 이어진다. 의심은 수치심의 형제이다. 영아가 느끼는 기본적 의심은 나중에 보다 언어적인 형태를 띠는 강박적 의심의 형태를 형성하고 성인기의 편집증적 공포로 나타나게 된다." 에릭 에릭슨, 앞의 책, pp. 307-311 참조.

하지 못해 고립감 혹은 소외감으로 거울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다.[15]

이 시에서 "파란 녹"은 「소년」에서의 "파란 물감"과 「자화상」에서의 "파아란 바람"과 관련지어 읽을 수 있다. '파란' 혹은 '파아란'으로 각기 표현되는 이 동일한 색상은 각 시에서 역할을 달리한다. 「소년」에서의 "파란 물감"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슬픈 정서'를 억압받는 폭력적 상황에서 자아를 찾기 위한 노력의 역할을 한다. 「자화상」에서의 "파아란 바람"은 우물에 비친 화자의 모습에 배경으로 놓이면서 화자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시적 자아를 정체시키는 역할을 한다. 「참회록」에서의 "파란 녹"은 시적 화자의 정체감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화자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무기력한 자아를 발견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폭력적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아의 확인, 무기력한 자아, 무기력한 자아의 확인을 통한 수치심의 발견으로 귀결된다.

시 「자화상」과 「참회록」에서 화자는 폭력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구리거울"과 "우물"로 상징되는 현실의 한계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화자는 현실의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지만 억압적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화자가 꿈꾸는 미래에 대한 상상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때 화자가 갖게 되는 현실에 대한 한계와 구속감은 정서적 폭력이 강요되는 사회상황에서 빚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윤동주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억압적인 상황을 슬픔이라는 정서의 강요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슬픔의 정서는 화자의 성장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

15) "친밀감과 상반되는 개념은 거리두기이다. 이는 스스로 선택하는 고립이며, 필요한 경우 자신의 본질에 위협이 되는 특질을 가진 힘이나 자신의 친밀한 관계를 침범하는 세력권을 가진 사람을 물리치려는 태도를 가리킨다." 에릭 에릭슨, 같은 책, pp. 322-326 참조

윤동주는 자신의 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 슬픔의 정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매번 현실의 한계에 부딪혀 폭력적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자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폭력적 상황에 대한 극복 대신 자신에 대한 수치감과 죄책감, 고립감 등으로 얼룩져 있는 자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3. 심리적 질병에 대한 인식 양상

윤동주의 시에서 사회의 정서적 폭력으로 인해 화자는 성장하지 못하고 수치심, 죄책감, 고립감 등에 싸여 있는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감정들은 화자 안에 오래 머물러 자아의 성장을 방해하는 주요 감정으로 자리하게 된다. 그리고 윤동주는 자신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수치심, 죄책감, 고립감 등을 질병으로 인식하게 된다.

> 살구나무 그늘로 얼골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어, 젊은 여자가 흰 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어 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어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 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었든 자리에 누어본다.
>
> -「병원」 전문

이 시는 화자의 질병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나는 시다. 1연은 화자가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 아직 의사의 진료를 받기 전 병원의 뒤뜰에서 발견하게 된 “가슴을 앓는다는” 젊은 여자에 대한 묘사로 이루

어져 있다. 일광욕을 하고 있는 이 젊은 여자는 외부 환경이 간섭을 하지 않는 소외된 상태에 놓여 있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찾어 오는 이"가 한 명도 없으며 "나비 한 마리"도 찾아오지 않는다. 젊은 여자는 "살구나무 그늘로 얼골을 가리고" 있지만 이 살구나무는 슬프지도 않고 바람도 불지 않는다. 이러한 배경들은 방관자와 같은 존재로 여자를 둘러싸고 있다.[16] 이렇게 젊은 여자는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않으며 받지도 않는 철저하게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 시에서 젊은 여자가 앓고 있다는 질병의 병명은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가슴을 앓는다는" 증상만이 드러날 뿐이다. 그런데 이 젊은 여자는 병실 안이 아닌 병원의 뒤뜰 즉 개방된 공간에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하면서 자신의 병을 치유 받고자 한다.[17] 그리고 3연에서는 "옷깃을 여미고" 병실로 들어가는

16)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현상인 "방관자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에서 '젊은 여자'를 둘러싸고 있는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불지 않는 바람, 찾아오지 않는 이, 찾아오지 않는 나비 등은 방관자 효과를 조성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이 젊은 여자는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주위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다.

17)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술은 "'젊은 여자'의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하"는 풍경을 같은 색을 띠는 "살구나무"에 빗대는 발상이란 아무래도 심미적 차원이다. 이것은 퇴고 과정에 잘 드러나는데, 원고본에 "무릅(무릎)팍까지"라는 다소 관능적인 구절을 썼다가 시집으로 묶으면서 삭제한 흔적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원술, 앞의 논문, p. 206. 김응교는 "무르팍까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자칫 관능적인 페티시즘(fetishism, 물신숭배)의 시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작가가 의도한 주제와 달리 흰옷을 입고 하얀 다리를 무르팍까지 드러낸 아가씨를 엿보는 페티시즘의 시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윤동주는 이 시가 필요 없는 단어로 인해 선정적으로 표현되지 않기를 원했을 겁니다. 윤동주는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바람이 불어」 1941)라고 할만치 금욕적이었고 늘 반성하는 존재였습니다. 그에게 "무르팍까지"라는 자칫 관능적인 표현은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지웠으리라 생각합니다."와 같이 논의한다. 김응교, 앞의 논문, pp. 182-183.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관능적이거나 윤리적인 접근보다는 치유의 공간을 암시하기 위한 표현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여자가 자신의 병을 어디에서 치유 받고자 하는지 알 수 있는 행동이다. 왜냐하면 병실 밖에서는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는 반면에 병실 안으로 들어갈 때는 오히려 "옷깃을 여미"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동은 여자가 병실 안을 더 격식을 차려야 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견뎌야 하는 사회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여자가 치유를 받고자 하는 공간도 여자에게 무관심하고 단절되어 있어서 가슴을 앓는다는 그 병은 쉬이 나을 수 없다는 것을 짐작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자는 치유 받지 못한 채 다시 병실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여자는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병실이라는 공간에 스스로 자처해 들어감으로써 '환자'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쉽게 씌워진 시」 부분

그런데 「병원」의 2연에서는 젊은 여자가 누워 있던 그 공간에 화자가 놓이게 된다. 중요한 것은 화자가 직접 이 공간에 찾아왔다는 것이다. 화자가 "처음으로 이곳에 찾어"오는 행위는 「쉽게 씌워진 시」에서 자신에게 내밀어 잡는 "최초의 악수"와 같은 것이다. 이 두 가지의 행동은 모두 자신의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질병을 인식하고 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내딛는 첫걸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초의 악수'는 지금까지의 자신에 대한 부정이 인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적 질병의 치료는 병든 자신에 대한 자각과 인정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화자가 느끼는 질병은 신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사회적 억압에 의해 발생된 심리적인 질병이다. 화자가 앓는 병이 심리적 질병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신체적 증상보다는 "지나친 시련"과 "지나친 피로"와 같은 심리적인 증상이 만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모는 행위나 자신에게 “최초의 악수”를 건네는 행위, 스스로 병원을 찾는 행위 등은 지금까지의 정체된 자아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자아를 찾아가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병원의 뒤뜰에서 본 ‘가슴을 앓는다는 젊은 여자’와 마찬가지로 화자는 구체적인 병명을 알 수 없고 치료를 받지도 못한다. 화자의 병에 대해 의사는 모르거나 부정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화자와 의사의 관계를 살펴보자면 의사는 ‘늙은 의사’이고 화자는 ‘젊은 환자’이다. 그리고 ‘늙은 의사’가 모르는 병은 “젊은이의 병”이다. 늙은 의사가 화자의 병에 대해 진단을 내릴 수 없는 이유가 ‘젊은이의 병’이기 때문이라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만약 화자의 병이 ‘젊은이의 병’이 아니었다면 의사는 화자의 병을 모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늙은 의사’는 환자의 병에 대한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이므로 의사의 태도는 젊은이를 억압하는 사회적 상황이나 시대적 권력의 양상으로 읽을 수 있다. 젊은이는 현재 자신의 고통을 말해도 모른 척하거나 부정하는 ‘늙은 의사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화자의 병이 ‘젊은이의 병’이라는 점에서 ‘젊은 여자’의 ‘가슴을 앓는다는 병’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젊은 여자 또한 ‘늙은 의사’가 권력을 행사하는 병원에 있는 한 ‘가슴을 앓는다는 병’을 치유할 수 없다. 화자와 젊은 여자가 겪는 고통은 이들을 억압하는 사회적 상황을 극복해내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이 시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화자가 「소년」, 「자화상」, 「참회록」 등에서 보이는 반성적이고 무기력한 태도와는 달리 자신이 가진 병의 원인을 깨닫고 분노를 밖으로 분출한다는 점이다.[18]

---

18) 필립 짐바르도에 의하면 “공포와 분노는 공격성을 만들어내며 다른 민족이나 인종을 향한 공격성은 인종차별을 만들어내서는 새로운 형태의 테러가 발생하게 된다.”(2001). 심은정, 『심리학개론』, 휴넷, 2020, p.213 재인용. 그렇기에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라고 자신을 억누르는 태도는 새로운 폭력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신념과 억압에 길들어진 젊은 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중적인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와 같은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자는 수치감이나 죄책감, 고립감 대신 분노에 가득 찬 화자의 내면을 인식하고 밖으로 표출한다. 다소 격앙된 이 표현은 억누르는 듯하지만 반어적으로 성을 내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스스로 자신을 억압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사회가 얼마나 억압적이며, 사람들은 그 억압에 길들어 있고, 「소년」에서 볼 수 있는 정서적 폭력과 같은 억압이 누적되어 질병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3연에서는 젊은 여자가 병실로 들어가고 화자만 뒤뜰에 남게 되어 이들은 공간적으로 분리된다. 앞에서도 논의했듯이 여자는 뒤뜰에서는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하고 “옷깃을 여미고” 병실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뒤뜰이 치유의 공간이 되고 병실은 오히려 억압의 공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치유의 공간에 화자 혼자 남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누었던 자리에 누워보는 행위는 「쉽게 씌워진 시」에서 자신에게 내미는 ‘최초의 악수’처럼 자신과의 화해를 통해 질병의 치유를 바라는 태도로 보인다.

의사가 있는 진료실이나 병실이 치유의 공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들이 앓고 있는 병이 의사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것이다.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자아의 회복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는 병을 가진 이들은 병실과 병원 밖의 중간 지점인 뒤뜰에 머물러 있다. 이들의 병은 억압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분노가 쌓여 생긴 질병이다. 그리고 그 억압에서 벗어나야만 건강을 회복하고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렇기에 ‘여자가 누워 있던 자리’에 누워보는 화자의 행위는 병원 밖으로 나가기 위한 자기 치유의 행위로 읽을 수 있다. 그런데 병원 밖에도 자신과 같은 환자는 넘쳐나는 상황이다. 결국 화자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병원 밖으로 나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살펴보았을 때 윤동주는 성장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정체된 자아를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동주가 말하는 이 질병은 신체적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질병에 대한 인식은 늙음과 젊음으로 양분되어 가부가 결정된다. 젊은 환자는 이 질병을 인식하고 밖으로 표현하며 치료하고자 한다. 반면에 늙은 의사는 질병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정하기까지 한다. 권력을 가진 기성세대의 억압에 의해 사회에는 젊은이의 질병이 늘어나는 것이다. 윤동주는 억압되어 있던 분노의 표출을 통해 사회적 질병의 치유와 정체된 자아의 성장을 모색한다.

4. 폭력과 질병의 자기 치유

윤동주의 시에서 폭력에 대한 인식은 성장하지 못하는 자아의 문제가 크게 작용한다. 정서적인 억압은 밖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한 자리에 누적되어 질병을 유발한다. 그런데 이러한 질병을 인식하는 것은 젊은 세대이며 이를 다시 부정하고 억압하는 것은 권력을 쥐고 흔드는 늙은 세대이다. 윤동주는 이를 '늙은 의사'와 '젊은 환자'의 관계를 통해 밝혀내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늙음과 젊음의 관계는 어떻게 생성되고 확장되는지 살펴보겠다.

>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육첩방은 남의 나라,//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한줄 시를 적어 볼가,//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보내주신 학비봉투를 받어//대학노-트를 끼고/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생각해 보면 어린때 동무를/하나, 둘, 죄다 잃어 버리고//나는 무얼 바라/나는 다만, 홀로 침묵하는 것일가?//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시가 이렇게 쉽게 씨워지는 것은/부끄러운 일이다.//육첩방은 남의 나라/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쉽게 씌워진 시」 전문

화자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 밤비, 즉 외부의 개입으로 인해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게 된다. 자신의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육첩방"이 사실은 남의 공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육첩방'은 윤동주가 일본 유학 시절 거주하던 방이기에 "남의 나라"로 인식하게 되는 순간은 현실을 인식하는 순간이다. 또한 타국에서 유일하게 가질 수 있었던 내면적 공간의 상실을 맞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육첩방을 남의 나라로 인식하는 것은 현실의 자각과 내면세계의 상실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화자가 갖게 된 이러한 상실감은 계속해서 화자의 내면을 지배하게 된다. 화자의 내면을 상실의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화자는 자기만의 주체적 자아를 키울 수 있는 공간 대신 상실의 공간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와 같이 변주된 부분을 보면 '밤비'는 이미 상실감에 빠져 있는 화자에게 자신이 처한 또 다른 현실을 자각하게 만든다.

「소년」에서 '슬픈 가을'로 둘러싸여 자라지 못한 소년은 이 시에서는 '슬픈 천명을 가진 시인'이라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 한번 인식된 '슬픔'이라는 정서가 시인의 전 생애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시가 이렇게 쉽게 씌워지는 것은/부끄러운 일이다"와 같은 부분에서도 수치감과 자기의혹이 화자의 내면에 깊게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감은 시를 쓰는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시를 쓰는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고 자신이 시인임에도 침묵하게 만드는 요인은 "대학노-트를 끼고/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그의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병원」에서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와 관련지어 살펴보았을 때 '늙은 교수' 또한 '늙은 의사'와 동일 선상

에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젊은이의 질병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정하는 기성의 권력과 동일시되는 '늙은 교수'에게 강의를 들으러 가는 행위는 기성의 권력에 굴복하고 편승하는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시를 쓰는 자신에게 수치감을 느끼고 자신을 부정하며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형도의 시 「대학시절」에도 "시를 쓰던 후배는 자신이 기관원이라고 털어놓았다/존경하는 교수가 있었으나 그분은 원체 말이 없었다"와 같은 부분이 있다.[19] 기형도의 시에서도 「병원」과 「쉽게 씌워진 시」에서처럼 시인은 시인이 아니고 존경하는 교수는 말이 없는 인물이다. 늙은 의사와 교수의 침묵은 젊은이를 침묵하게 만들고 시를 쓸 수 없게 만드는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젊은이는 말하지 못하고, 시인은 시를 쓰지 못하며, 소년은 "어릴 때 동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나의 공간/남의 나라', '늙음/젊음', '소년 시절의 상실' 등은 모두 화자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인식의 혼란이다. 「병원」에서 늙은 의사는 '나의 늙은 의사'이고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의사로 국한되며 다른 사람이 아닌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스스로 찾아가는 것도 화자이다. 이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결국 늙음과 젊음으로 양분된 세계는 화자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의식의 양분화를 의미한다. 화자는 세계를 양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식세계가 양분되어 갈등하는 것을

19) 기형도의 「대학 시절」은 윤동주의 「쉽게 씌워진 시」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 부분을 읽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그 아름다운 숲에 이르면 청년들은 각오한 듯/눈을 감고 지나갔다, 돌층계 위에서/나는 플라톤을 읽었다, 그때마다 총성이 울렸다/목련철이 오면 친구들은 감옥과 군대로 흩어졌고/시를 쓰던 후배는 자신이 기관원이라고 털어놓았다/존경하는 교수가 있었으나 그분은 원체 말이 없었다/몇 번의 겨울이 지나자 나는 외토리가 되었다"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각은 폭력과 질병에 대한 치유도 자신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 아직 창밖에 밤비는 속살거리지만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를 하게 된다. 내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므로 이 모든 갈등은 나와의 화해에서 시작된다. 이 ‘최초의 악수’는 지금껏 부정해왔던 자신을 인정하고 침묵을 깨뜨리는 젊은이, 시를 쓰는 시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내면적 갈등의 화해로 읽을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윤동주의 시는 늙은 의사와 늙은 교수로 대변되는 기존 권력에 의해 젊은 세대가 성장하지 못하고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기존 권력이 강요하는 폭력적 상황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다. 윤동주는 폭력과 질병의 문제를 통해 시대에 대한 자신의 반성과 고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과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 또한 내면세계의 화해로부터 찾을 수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윤동주의 시를 중심으로 하여 폭력과 질병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로 나누어 윤동주의 시에서 폭력은 어떻게 드러나며 질병은 어떻게 인식되는지 폭력과 질병의 극복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우선 윤동주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억압적인 상황을 슬픔이라는 정서의 강요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슬픔의 정서는 화자의 성장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윤동주는 자신의 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 슬픔의 정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

한다. 그러나 매번 현실의 한계에 부딪혀 폭력적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자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폭력적 상황에 대한 극복 대신 자신에 대한 수치감과 죄책감, 고립감 등으로 얼룩져 있는 자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윤동주는 성장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정체된 자아를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동주가 말하는 이 질병은 신체적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질병에 대한 인식은 늙음과 젊음으로 양분되어 가부가 결정된다. 젊은 환자는 이 질병을 인식하고 밖으로 표현하며 치료하고자 한다. 반면에 늙은 의사는 질병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정하기까지 한다. 권력을 가진 기성세대의 억압에 의해 사회에는 젊은이의 질병이 늘어나는 것이다. 윤동주는 억압되어 있던 분노의 표출을 통해 사회적 질병의 치유와 정체된 자아의 성장을 모색한다.

또한 윤동주의 시는 늙은 의사와 늙은 교수로 대변되는 기존 권력에 의해 젊은 세대가 성장하지 못하고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기존 권력이 강요하는 폭력적 상황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다. 윤동주는 폭력과 질병의 문제를 통해 시대에 대한 자신의 반성과 고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과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 또한 내면세계의 화해로부터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음사, 1955.

2. 논문

권경아, 「〈병원〉에 나타난 병적 징후로서의 세계」, 『시와시학』, 시와시학사, 2005, pp. 144-149.
김응교, 「윤동주와 걷는 새로운 길(16)」,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2014, pp. 178-186.
류양선, 「윤동주의 〈병원〉 분석」, 한국현대문학회, 『한국현대문학연구』19, 2006, pp. 375-411.
심원섭, 「윤동주의 미발표 작품과 퇴고 과정에 대한 일 고찰」, 국제어문학회, 『국제어문』25, 2016, pp. 319-349.
이은실, 「윤동주 시 〈병원〉에 나타난 타자성 연구」, 한국시학회, 『한국시학연구』49호, 2017, pp. 119-145.
임현순, 「윤동주 시의 디아스포라와 공간: 시의 창작방식을 통해 나타난 저항의지」, 우리어문학회, 『우리어문연구』29호, 2007, pp. 481-509.
정원술, 「윤동주와 키에르케고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14, pp. 185-214.

3. 단행본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옮김,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수전 손택, 이재원 옮김, 『은유로서의 질병』(이후, 2002).
심은정, 『심리학개론』, 휴넷, 2020.
에릭 에릭슨, 송제훈 옮김, 『유년기와 사회』, 연암서가, 2014.

(투고일: 2020. 11. 15 심사완료일: 2020. 12. 18 게재확정일: 2020. 12. 21)

오채운
소 속: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주 소: 인천시 부평구 안남로 260 현대아파트 502동 1812호
전자우편: sanchaeg@naver.com

[Abstract]

A Study on the Violence and Disease in Yoon Dong-ju's Poetry

O, Chae-woon

Based on Yoon Dong-ju's poem, we looked at the problems of violence and disease along with the ways to overcome them. In Yoon Dong-ju's poems, the emotion of sadness is strongly expressed, which is forced violently from the outside. The speaker tries to escape from the emotion of sadness that is violently forced. However, he cannot overcome the violent situation every time he encounters the limits of reality. So instead of overcoming the violent situation, he shows himself smeared with shame, guilt, and isolation.

Also, Yoon Dong-ju recognizes his stagnant self as a disease that fails to grow. This disease has no physical symptoms. However, the perception of this disease is divided into old and youth, and the pros and cons are determined. Young patients recognize this disease, express it outward, and seek treatment. On the other hand, the old doctor does not recognize the disease and even denies it. It can be seen like the oppression of the older generation with power increases the disease of young people in society. Yoon Dong-ju hopes to heal social diseases and grow the stagnant self through the expression of repressed anger.

However, the cause of the violent situation that this existing power forces does not lie outside but inside the poet. Yoon Dong-ju is showing his inner anguish over the times through the problems of violence and disease. Therefore, in Yoon Dong-ju's poems, the way to heal violence and disease can also be found not from the outside but from the reconciliation of the inner world.

Key words: Yoon Dong-ju, contemporary poetry, violence, disease, overcome, grow, shame, guilt, isolation